

한변, 북한인권단체들 및 재중 탈북민 가족대표들과 함께 주한 중국대사에 긴급 면담요청 기자회견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피난처 등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7월 15일 재중 탈북민 가족 5인 집단자살 사건 이후에도 아직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들을 위해 8월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조요청을 하였음. 그런데 중국 운남성 시창반나에서 체포되었던 탈북민 15명이 어제 8월 1일 중국 연길로 옮겨져 강제북송이 임박한 상태이므로 긴급히 탈북민 가족 대표들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이 주한 중국대사에게 면담요청하고, 불응 시 2017년 8월 16일 오전 10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직접 합동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할 예정임.

- 대사 면담 요청서

Request for an Ambassadorial Meeting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귀중

북한인권과 탈북자북송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최근 귀국에서 탈북자 가족 5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박해와 고문의 공포로 음독자살한 사건과 지속적으로 강제북송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에 관한 소식을 가족들로부터 접하고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운남성 시창반나에서 체포되었던 탈북민 15명은 어제 8월 1일 중국 연길로 옮겨져 강제북송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최근 가족들이 탈북 과정에서 귀국에 체포되어 북송의 위기 중에 있는 가족대표 5인과 함께 귀국 대사를 면담하고 북송중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면담시간은 2017.8.7.(월)~8.11.(금) 중 어느 시간이든지 귀국 대사께서 가능하신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회답이 없을 시 2017.8.16.(수) 오전 10시 귀국 대사관으로 찾아가겠으니 면담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8.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김태훈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이호택